

LG전자, 한 번 충전하면 이틀 쓰는 '슈퍼 대용량폰' 출시

발행일 : 2017.04.23

LG전자 'X파워2' 4500mAh 역대 최대...6월초 30만원대 출시



한 번 충전으로 이틀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 탑재 스마트폰이 출시된다.

LG전자는 6월 초에 4500mAh 대용량 배터리를 갖춘 'X파워2(LGM-X320)'의 국내 출시를 확정했다. X파워2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판매한다. 가격은 약 30만원에 책정될 예정이다.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국내 출시 스마트폰 가운데 최대다. 갤럭시S8 배터리 용량(3000mAh)보다 50% 크다. LG전자 G 시리즈 스마트폰 가운데 최대 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LG G6(3300mAh)보다는 1200mAh 크다.

X파워2는 2월 'MWC 2017'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세계 최초로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다른 국가에 앞선 국내 출시는 소비자의 장시간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대용량 배터리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LG전자 관계자는 "X파워2는 다른 국가에서 출시하지 않은 스마트폰"이라면서 "대용량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소비자 요구를 반영, 동영상·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오랜 시간 이용하는 데 최적화됐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X파워2가 한 번 충전하면 주말 내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동영상을 약 15시간 동안 연속 시청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은 약 18시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용량 배터리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고속 충전' 기능도 적용했다. 1시간 동안 배터리 용량 50%(2250mAh)를 충전할 수 있다.

LG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을 좀 더 오래 이용하려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조 배터리 없이 장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과의 차별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당분간 4500mAh 용량보다 큰 배터리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출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X파워2는 외부 활동이 잦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X파워2는 5.5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1300만화소 후면 카메라와 500만화소 전면 카메라를 장착했다. 후면 카메라에는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촬영이 이뤄지는 '제로셔터랙' 기능이 적용됐다.

전면 발광다이오드(LED) 플래시는 어두운 곳에서도 밝고 선명한 셀피(셀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 7.0(누가) 버전으로 구동한다.

<LG전자 'X파워2' 상세 스펙>

배터리	4500mAh
디스플레이	5.5인치 HD(1280×720)디스플레이
칩셋	1.56㎓ 옥타코어 프로세서
네트워크	롱텀에볼루션(LTE)
크기/무게	154.7×78.1×8.4mm/164g
카메라	후면 1300만·전면 500만화소 광각카메라
램(RAM)	2GB
내장메모리	16GB(마이크로 SD카드 슬롯 지원/최대 2TB)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7.0(누가)
색상	샤이니 블루, 샤이니 골드, 샤이니 티탄, 블랙 티탄
출시일	6월 초
출고가	약 30만원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http://news.nate.com/view/20170426n36311?mid=n0605>

LG디스플레이, 1분기 영업이익 1조 돌파...'사상 최대'

2017-04-26 17:10

대형 패널 주문 늘어 디스플레이 판매 가격 상승세 지속

"올 하반기에도 대형 패널 공급 부족...호실적 계속될 것"

LG디스플레이가 1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1조 269억원)을 올렸다. 전 분기에 세운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9043억원)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7조622억원에 달했다.

LG디스플레이 호실적의 배경은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력에 있다. TV 제조사들이 수익성 좋은 대형 TV 제작을 늘리면서 대형 패널 주문이 늘어난 것. 주문은 늘었지만, 대형 패널 생산 능력을 갖춘 디스플레이 업체는 많지 않다. 공급 부족으로 대형 TV용 패널 판매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양호한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다 모니터·노트북·태블릿PC 등 정보기술(IT) 제품용 디스플레이 가격도 상승세를 탔다. LG디스플레이의 1분기 제품별 판매 비중은 TV용 패널이 43%, 노트북·태블릿PC·모니터용 31%, 모바일용 26%로 주로 고가 제품에 집중됐다.

앞으로도 대형 TV용 패널 주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의 올해 2분기와 하반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김상돈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 2분기 패널값도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계획대로 대형 올레드(OLED) TV 생산량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언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TV 제조사들은 수익성 높은 대형 TV를 만들기 위해 대형 패널 구매에 몰릴 것"이라며 "BOE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기술력은 아직 낮아 대형 패널 공급 부족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http://www.etnews.com/20170425000272>

포스트 스마트폰 플랫폼 '보이스 챗봇'을 주목하라

발행일 : 2017.04.25



“보이스형 챗봇 시장은 플랫폼 성격이 강해 앞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사용자 관점에서 뮤직 플레이어라는 킬러앱이 이미 존재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황성재 플런티 CPO (공동창업자)는 27일 열리는 ‘모바일 뉴 트렌드, 챗봇 구축 가이드 A to Z’ 세미나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보이스형 챗봇은 스마트카,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 스마트 가전 등의 다양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도 갖고 있다”면서 보이스 챗봇 성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황성재 CPO는 “보이스 챗봇은 현재도 다양하게 존재하며 특히 관련 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현재 보이스 챗봇으로는 스타벅스봇, 날씨봇, 피자봇과 같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챗봇부터 유명인의 SN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봇, 심리치료를 위한 만들어진 봇 등 다양한 형태의 봇이 존재한다. 이 밖에 봇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봇 빌더, 봇을 거래할 수 있는 봇 마켓플레이스, 봇과 관련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석 툴 등 다양한 봇 관련 시장이 존재한다.

황성재 CPO는 “현재는 사용자 질문에 대해 수동적으로 답변을 수행하는 형태” 라면서 “그러나 머지않아 사용자 상황에 기반해 적절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적극적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이스 챗봇은 로봇 진화로의 첫걸음이라며 현재 보이스형 챗봇에서 물리적 움직임 속성만 부여하면 바로 로봇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이스 챗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상호작용 기술 등을 갖춰야 하며, 딥러닝 기술과 학습을 위한 풍부한 사용자 데이터가 높은 성능의 챗봇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는 “터치, 릴리즈, 호버링 등과 같은 스마트폰의 기본 상호작용 문법이 보이스 챗봇에서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서 “보이스 챗봇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터랙션 기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성재 플런티 CPO는 27일 '챗봇 구축 가이드' 세미나에서 '보이스 챗봇 시대의 사용자경험'이라는 주제로 챗봇 스피커의 등장 현황 및 전망, 보이스 챗봇 환경에서 변화하는 인터랙션 기술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다양한 산업군의 챗봇 사례를 통해 기획, 디자인,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번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참가는 전자신문인터넷웹사이트에, 등록 및 문의는 컨퍼런스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전보빈 기자 (bbjeon@etnews.com)

“더 키워라” 대화면 프리미엄 폰 다시 뜬다

2017-04-25



갤럭시S8 흥행 이후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다시 한 번 전성기를 맞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전면을 꽉 채우는 화면은 물론 저장 용량까지 커지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는 물론 중국 업체들도 프리미엄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성능은 갤럭시S8 등에 버금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성비가 뛰어나다. 소비자들의 즐거운 고민이 시작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중저가 스마트폰을 선호했던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제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8대 9화면 비율을 채택한 LG전자 'G6'의 베젤(테두리)리스 단말에 이어 삼성전자 갤럭시S8도 18.5대 9화면 비율을 채택하며 넓직한 '인피니트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모두 5.7인치 화면을 장착한 전작 '갤럭시노트7', 'V20'보다 크다.

화면 크기가 클수록 더 잘팔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5.8인치 갤럭시S8과 6.2인치 갤럭시S8 플러스를 내놓았는데, 실제 최고 사양을 갖춘 갤럭시S8 플러스 128G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리며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갤럭시 중 역대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가진 6.2인치 모델이 5.8인치보다 많이 팔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안타 증권은 투자보고서를 통해 갤럭시S8 연간 판매량을 5041만대로 추정하면서, 이중 갤럭시S8 플러스가 53.9%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장용량도 커졌다. 국내에서는 갤럭시S8 플러스 중에서도 6GB램과 128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한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국과 한국 시장을 겨냥해 나온 이 제품은 초기부터 완판됐다.

차기 출시될 '갤럭시노트8'과 LG 'V30' 역시 대화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갤럭시노트8의 경우 화면 크기가 6.4인치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커다란 화면과 고용량은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포함한 고화질 동영상 등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업체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위 사업자 화웨이는 지난 1일부터 새 전략폰 'P10' 판매를 시작했다. P10은 지난해 100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P9의 후속작이다. P10의 디스플레이는 5.1인치, P10 플러스는 5.5인치이다. 독일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 함께 개발한 듀얼카메라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50만원대부터 시작이다. 저장용량은 6GB램, 저장공간 128GB까지 다양하다.

샤오미는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미(Mi)6'를 선보였다. 미6는 갤럭시S8(해외 출시 버전)에 들어가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35를 탑재하고, 베젤리스 화면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따랐다. 저장용량은 64GB, 128GB이며 화면 크기는 5.5인치다. 미6의 출고가는 40만원대이다.

올해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8'도 풀스크린 디스플레이와 256GB 내장 메모리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아이폰8은 9월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애플에 이어 급성장하는 중국 스마트폰까지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5&sid2=731&oid=031&aid=0000409378>

LG유플러스, '클라우드 폰 서비스' 출시

2017-04-26 11:25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가 26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의 추가 저장공간을 100GB까지 늘려주는 '클라우드 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의 파일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 휴대폰 메모리 용량과 상관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로그인, 파일 업로드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휴대폰 내부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 LG유플러스가 26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의 추가 저장공간을 100GB까지 늘려주는 '클라우드 폰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LGU+]

또 원본 파일을 휴대폰 메모리에 그대로 두고 복사본을 서버에 백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본 파일을 실시간 저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사용자는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카메라 설정 메뉴에서 파일 저장위치를 'U+ 클라우드 저장소'로 선택해 클라우드 서버에 원하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더불어 클라우드에 저장한 파일은 PC에서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어 편리한 파일관리가 가능하다.

클라우드 폰 서비스에는 기존 다운로드 방식과 다르게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 동시에 다운로드 받는 파일 분할 블록 다운로드 기술과 LG유플러스에서 독자적으로 고안한 파일 캐시 기술이 적용됐다.

이는 빠른 다운로드 속도와 네트워크 부하 방지 및 배터리 효율 증대 효과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멀티 세션 다운로드 기술 등 주요 핵심 기술 7개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폰 서비스를 LG전자의 프리미엄 폰 'G6'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국내외 제조사에서 출시하는 다양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 G6 구매고객에게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저장공간 100GB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본 제공되는 100GB 외에 저장공간이 더 필요한 경우, 3천300원의 월정액을 내면 100GB를 추가해 총 200GB의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엽 LG유플러스 미디어개발담당 상무는 "대용량 콘텐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5G 시대를 앞두고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이 서비스를 여러 휴대폰 제조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응용해 국내외 다양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SKT·KT, 3G 주파수 절반 떼서 LTE 몫으로

2017-04-26 10:57

이통사	상향	하향	용도
LG유플러스	1920~1940	2110~2130	LTE
SK텔레콤	1940~1950	2130~2140	LTE
	1950~1960	2140~2150	3G
KT	1960~1970	2150~2160	LTE
	1970~1980	2160~2170	3G
비고	SK텔레콤은 1950~1955MHz(상향)과 2140~2145MHz(하향), KT는 1970~1975MHz(상향)와 2160~2165MHz(하향)를 LTE로 전환할 계획		



SK텔레콤과 KT가 2.1GHz에 남은 3세대(3G) 주파수 일부를 롱텀에벌루션(LTE)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주파수 경매 결과와 2.1GHz 이용 현황

SK텔레콤과 KT가 2.1GHz 대역 3세대(3G) 주파수 일부를 롱텀에벌루션(LTE) 용도로 전환한다. 4G LTE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품질 제고가 목적이다. 주파수 감소에도 3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는 삼성전자에 2.1GHz 대역 3G 주파수(각각 20MHz폭) 절반을 LTE로 전환할 수 있는 기지국 소프트웨어(SW) 지원을 요청했다.

SK텔레콤은 LTE 주파수에 인접한 1950~1955MHz(상향)과 2140~2145MHz(하향)를, KT는 1970~1975MHz(상향)와 2160~2165MHz(하향)를 LTE로 전환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KT는 3G 주파수를 각각 10MHz폭씩 줄여 이를 LTE로 사용한다. 전환이 완료되면 2.1GHz 대역에서 양사 LTE 주파수는 30MHz폭으로 늘어난다. 상향 15MHz폭, 하향 15MHz폭을 운영하는 것이다. 3G 주파수는 상하향 각각 5MHz폭씩 총 10MHz폭만 남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비슷한 시기에 2.1GHz 대역 상·하향 각각 15MHz폭을 지원할 수 있는 LTE 기지국 SW를 요청했다"면서 "6월까지 제공할 계획으로, 언제든지 LTE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는 초기 2.1GHz를 3G로 사용했다. 2014년 KT가 이 중 일부를 LTE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미래부는 LTE가 3G 진화기술인 점과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해 용도 전환을 허가했다. 이후 SK텔레콤 일부 주파수를 LTE 전환했다. SK텔레콤과 KT의 추가 전환도 무난할 전망이다.

관건은 기존 3G 이용자 품질 보호다. 미래창조과학부 2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국내 3G 트래픽은 1341테라바이트(TB)다. 10MHz폭 주파수로 1341TB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주파수 폭 당 얼마만큼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다는 표준은 없다"면서 "하지만 3G 트래픽이 계속 줄고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 유발은 모두 LTE에서 이뤄지고 있어 주파수가 줄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 12월 2만7687TB였던 LTE 트래픽은 2016년 12월 25만3042TB로 4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대용량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트래픽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가 LTE 주파수를 늘리는 이유다.

LTE는 다운로드 기준 10MHz폭당 75Mbps 속도를 낼 수 있다. SK텔레콤과 KT 모두 다운로드 5MHz폭 주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론상 37.5Mbps 이상 속도가 늘어난다. 이용자 체감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삼성전자, 뉴메모리 M램 시대 연다

발행일 : 2017.04.24

속도 빠르고 가격 저렴...28나노 파운드리 사업 접목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생산 공장 전경.>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M램 시대가 열린다.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서비스에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기술인 M램을 접목한다.

M램은 자성체에 전류를 가해 발생한 전자회전을 활용, 저항 값 변화에 따라 데이터를 쓰고 읽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D램만큼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M램을 시스템반도체 내장 메모리로 활용하면 시장 창출이 용이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단품 판매보다 파운드리 고객사에 공정 기술 지식재산(IP)을 팔겠다는 의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시스템LSI사업부는 M램을 내장한 시스템온칩(SoC)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 달 24일 미국에서 열리는 삼성 파운드리포럼 행사에서도 M램 임베디드 메모리 공정 기술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첫 고객사는 NXP로 확정됐다. NXP는 삼성전자와 28나노 완전 공핍형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FD-SOI) 개발 양산에 관한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사물인터넷(IoT)용 SoC i.MX 시리즈를 28나노 FD-SOI 공정으로 양산한다. 올해 신제품에는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되지만 내년 차세대 SoC와 마이크로컨트롤러(MCU)에는 삼성전자 M램 임베디드 메모리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FD-SOI는 삼성전자가 중보급형 반도체 파운드리를 위해 밀고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매우 얇은 절연 산화막을 형성하고 그 위로 평면형 트랜지스터 전극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절연 산화막은 트랜지스터 아래쪽 공간을 완전히 밀봉, 전자가 게이트를 거쳐 이동할 때 발생하는 기생 용량을 낮추고 누설 전류를 감소시킨다. 일반 평면형 반도체 대비 동작 전압이 낮아 에너지 효율성도 높다.

M램은 바로 이 FD-SOI 공정에서 활용된다. 고객사는 임베디드 메모리 기술로 플래시 메모리와 M램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임베디드 M램 메모리 기술을 활용, 시제품을 완성해 둔 상태다. 지난해 12월 열린 반도체 공정 전문 학회 국제전자소자회의(IEDM)에서 그 결과물을 포스터 논문 형태로 공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M램 내장 디스플레이 타이밍컨트롤러(티콘) 시제품은 기존의 고속, 고가의 S램 내장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나타냈다. 티콘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글자나 이미지 등 영상이 표시될 수 있도록 각종 제어 신호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칩이다. 디스플레이 패널 두뇌로 불린다.

삼성에 따르면 임베디드 M램은 플래시메모리 대비 원가가 저렴하다. 45나노 플래시메모리를 SoC에 내장하려면 10장의 마스크가 필요하다. 28나노의 경우 20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M램은 3~4장이면 충분하다. 그만큼 공정 수가 줄어든다. 크기도 작다. 속도 역시 일반 플래시 메모리보다 빠르다. S램과 비교하면 단 30%의 면적만 차지한다. 남은 면적은 다른 설계 면적으로 할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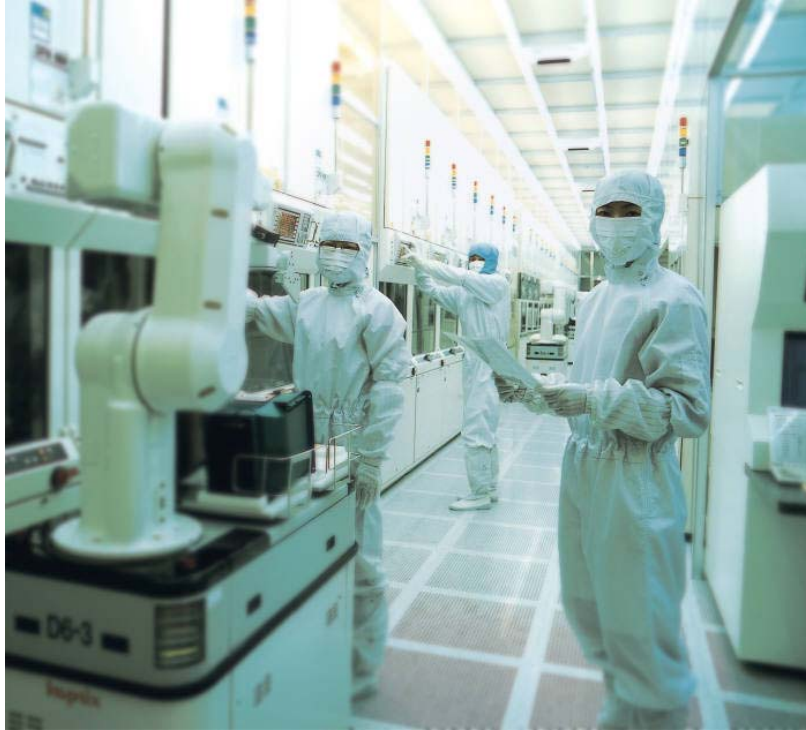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 M램을 접목하면서 뉴 메모리 시장이 개화할 전망이다. 이미 인텔과 마이크론은 '3D 크로스포인트'라는 이름으로 P램을 상용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텔은 PC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뉴 메모리로 서버와 PC 스토리지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공략하는 것이 용이했다"면서 "삼성전자는 경쟁력을 보유한 파운드리 사업에서 M램을 IP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SK하이닉스 파운드리사업부 분사... 7월 'SK하이닉스시스템IC' 설립

발행일 : 2017.04.26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사업부를 독립 자회사로 분사시킨다.

파운드리는 외부 고객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 주는 사업이다. 순수 파운드리 사업에 책임경영제를 강화, 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고화소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독자 브랜드 반도체 사업에 집중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18일 파운드리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사 설명회를 가졌다. 신설 자회사 명칭은 'SK하이닉스시스템IC(가칭)'로 정했다. 충북 청주 사업장에 위치한 200mm 웨이퍼 공장(M8)과 제반 시설 일체가 초기 자산으로 편입된다. SK하이닉스 파운드리사업부 소속 직원들은 생산직과 일반 사무직을 합쳐 1000여명이다. 이사회를 거쳐 7월 1일자로 SK하이닉스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다.

SK하이닉스시스템IC 초대 대표이사에는 SK그룹 내 사장급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 임원으로는 이동재 파운드리사업부장(상무)을 포함해 제조, 마케팅 영업 분야 인물이 자회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이 같은 결정을 굳히고 파운드리사업부 분사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SK하이닉스 청주 M8 공장 생산 용량은 200mm 웨이퍼 투입 기준 월 10만장이다. 주력 생산 품목은 CMOS이미지센서(CIS), 디스플레이구동드라이버IC(DDI), 전력관리칩(PMIC) 등이다. 최대고객사는 LG그룹 계열 팹리스 업체 실리콘웍스다. SK하이닉스 M8 공장에서 생산된 실리콘웍스 DDI는 LG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에 탑재된다. PMIC는 국내 팹리스 실리콘마이터스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 주력 생산 품목 가운데 하나인 CIS는 SK하이닉스 브랜드로

판매된다. 다만 1300만화소 이상 고화소 제품 생산은 SK하이닉스가 계속 관장한다. 경기도 이천 300mm 웨이퍼 공장인 M10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한다.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SK하이닉스 파운드리사업부의 지난해 매출액은 1억400만달러(약 12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액(17조1980억원)에서 파운드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 안 됐다. 이익 지표로는 적자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메모리 시장 호조로 매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은 실적 확대로 잔칫집 분위기다. 그러나 파운드리사업부는 '비주력'으로 꼽혀 전사 차원의 지원도 크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청주 M8 공장을 포함한 파운드리사업부의 분사 결정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 보이겠다는 취지"라면서 "최근 사물인터넷(IoT) 시장 확대 움직임으로 200mm 파운드리 업계가 공급 부족 상황에 처해져 있어 고정비 축소, 공정 개발, 고객사 확대에 성공하면 큰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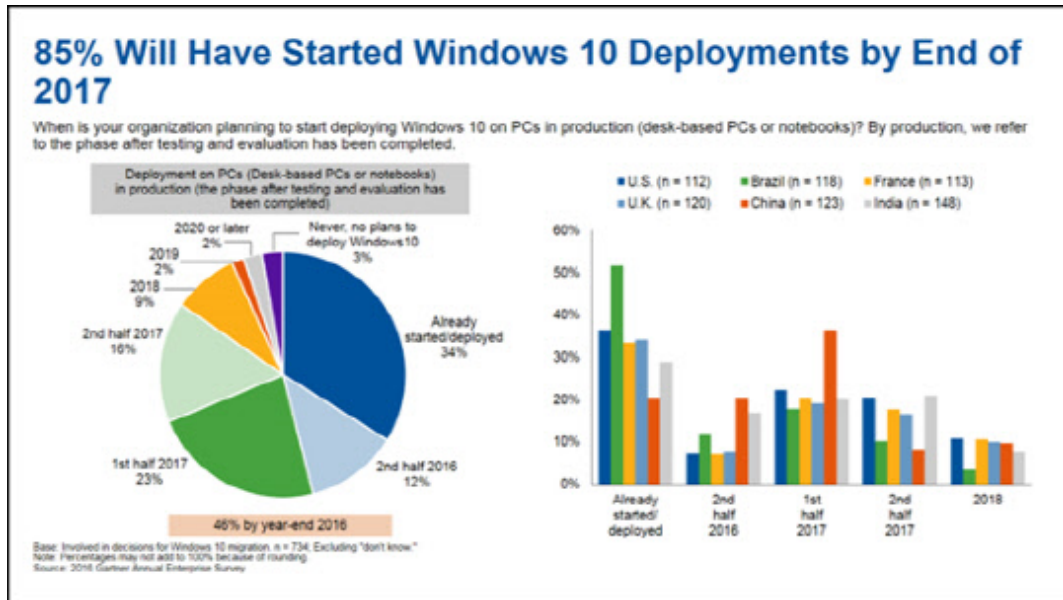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문인식센서 집적회로(IC)를 포함해 포스 터치칩 등 새로운 파운드리 생산 공정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http://news.nate.com/view/20170427n10402?mid=n0600>

"전체 기업의 85%, 올해 말까지 윈도우 10 도입 시작"

2017-04-27 11:10



글로벌 IT 자문기관 가트너(Gartner Inc.)는 윈도우 10 도입이 이전 운영체제(OS) 채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너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85%가 올해 말까지 윈도우 10을 도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총 6개 국가에서 윈도우 10 마이그레이션 결정에 관여하는 1014 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란짓 아트왈(Ranjit Atwal) 가트너 책임 연구원은 "기업들은 윈도우10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2015~2016년 설문조사에서 윈도우10의 평가 및 도입에 걸리는 시간이 23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이미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나 2018년까지 업그레이드하기로 미뤄둔 상태"라며 "이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윈도우 10으로 전환하거나 윈도우 10 도입 전 해당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단, 윈도우 10으로의 전환이 비즈니스에 즉각적이고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아 응답자의 25% 정도가 예산 관련 문제를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케 에셔리히(Meike Escherich) 가트너 수석 연구원은 "배터리 수명 연장, 터치스크린, 기타 윈도우10 기능 등 윈도우 10에 최적화된 제3세대 및 4세대 제품이 출시되면서 기업 내 응답자들의 구매 의사가 크게 늘어났다"며 "컨버터블 노트북의 경우 기업들이 테스트 및 시범(pilot) 단계에서 구매 및 도입 단계로 전환하면서 구매 의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